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제126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7년 7월 31일

2017년도 제3차 회장단 회의 및 제6차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개최일시 : 2017년 7월 27일(목요일) 11:00
- 개최장소 : 동보성 중식당(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 참석인원 :
 - 회장단 : 재적 16명 중 15명 참석
참석자 : 회장(갑보), 부회장(상화, 의철, 상록, 상식, 상국, 친구, 일용, 민섭, 재면, 현근, 정보, 감사(상렬, 상현, 현보))
 -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 : 재적 11명중 10명 참석
참석자 : 위원장(갑보), 부위원장(상화), 위원(상록, 상식, 민섭, 웅섭, 재면, 정보), 감사(상렬), 간사(언태)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원활한 회장단 회의개최를 위한 정관 일부개정, 대종회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및 임대, 청성백재각 관련 감사의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의결하였다.



회장단 및 재각건립추진위원회 회의 전경

대종회는 2017년도 제3차 회장단 회의 및 제6차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 청성백재각 관련 감사 보고사항, 2) 재각 헌성금 마감에 관한 사항, 3) 청송 악은공재실(경의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대종회 상임이사 인사발령 사항, 5) 2017. 7. 22 뿌리교육 결과 등 업무

부의안건	의결내용	부의안건	의결내용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건	회장단 회의는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종중재산 관리 및 취득·처분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종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여 중요 안건이나, 특히 시급을 요하는 회의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을 위임(출석권 및 의결권 포함)할 수 있도록 정관 제21조제2항 규정을 일부 개정함.	재각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한 심의 건	청송심문의 중흥을 실질적으로 이룩하신 4세조 청성백 묘소 및 재각을 시조 묘소 및 재각에 뒤이은 '청송심문 제2의 마음의 고향'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관리사는 물론 홍살문, 비각을 건축하고, 연못과 새로운 재각 진입로 개설 공사(표지석, 안내관 등 포함)는 추후 집행부가 예산확보 문제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토지 매매 및 임대심의건	1. 안성시 도기동 산64-2(임야) 2,888㎡는 안성장례식장에 인접한 임야로서 대종회 수익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기로 한다. 2. 연천군 아미리 산 179-1외 8(임야 등) 231,850㎡를 태양광 발전업체에 임대하도록 하며, 계약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한 2개 업체 중에서 선정되되, 대종회 집행부에 위임한다.	조경공사에 관한 심의	조경공사와 묘소 앞 계단 정비공사 비용 등을 최대한 절약하여 홍살문, 비각 등의 추가 건축비에 충당하고, 연못과 재각 진입로 개설 공사비는 추후 대종회에서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한다.
청성백재각 내부기둥 교체 건	재실 내부기둥 4개 중 기존에 칸막이 공사가 이루어진 2개 기둥 및 공간은 존치(제복 보관 및 제관 의전실로 활용)시키되, 나머지 2개 기둥은 배흘림기둥으로 교체한다.	청성백재각 명칭 심의 건	4세조 청성백 재각명칭을 청성백에 봉해지신 선조님의 큰 업적을 기리며, 자손만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청성재(靑城齋)"로 정한다.
		청성백 재실에 모실 영정사진 심의 건	2015년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던 1388년 위화도 회군 당시 현장에 있던 3명의 장수(우군도통사 이성계, 우군 조전원수 이지란, 서경도원수 심덕부)의 초상화인 장수군도(將帥軍圖)에서 청성백 선조님을 사진으로 제작하여 연천 재실에 영정으로 모시기로 한다.

2017년도 뿌리교육 실시 및 장학금 수여

- ◎ 일시 : 2017년 7월 22일
- ◎ 장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315 (주왕산온천관광호텔)
 - 장학증서 수여
 - 인사말(대종회 갑보회장)
 - 대종회 소개(언태 총무이사)
 - 청송심씨 관향인 청송과 시조부터 4세조 선조님 발자취 소개 (능광 이사)
 - 묘소참배 및 사적견학(중대산 ⇒ 만지송 ⇒ 시조묘소 ⇒ 만세루 ⇒ 보광사 ⇒ 현비암 ⇒ 찬경루 ⇒ 악은공단소 ⇒ 경의제 ⇒ 송소고택)

2017년 뿌리교육은 전국에서 모인 장학생 및 일가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장학증서 수여와 교육을 마치고 시조묘소 참배와 선조님의 사적을 답사하면서 선조님이 이루어 놓으신 훌륭한 업적을 재 발견했고, 가문의 빛나는 전통을 느끼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선조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옛 선조님들이 이룩한 업적과 뿌리깊은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된 나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오늘 참석한 장학생들은 심문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앞으로 우리 심문의 빛나는 미래를 영원히 이어나갈 기둥이 될 것이다.

- 갑택 문화이사 -



장학금을 전달하는 갑보 대종회장



뿌리교육 장면



찬경루 앞에서 단체사진

忠惠公(諱: 連源) 심씨명헌보감(沈氏名賢寶鑑)

여기에 수록된 선조(先祖)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급 문서인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인물지 등 고문헌에서 발췌한 인물들로 국가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우리 심씨 문중을 빛낸 선현(先賢)들입니다. 편집순서는 출생연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출생연대가 불분명한 인물(人物)은 활동당시의 시대상황을 참고(參考)하여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원문(原文)과 번역문(翻譯文)을 함께 수록하여 사기(史記)의 정통성(正統性)을 밝히고 동시에 선조님들의 업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資料)가 되고 한글세대인 젊은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傾注)하였으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누락(漏落)된 선조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史料)되오니 해당 문중과 후손들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종보 게재에 누락된 선조님을 시대별로 연재를 하겠습니다.

5세안효공(濫)2자-공숙공(澮)3자-판관공(浚)2자-사인공(順門)장자(충혜공(連原))

심연원(沈連源) 충혜공 비명(碑銘) 정사룡(鄭士龍) 지음

본국 조정의 대신으로 멀리 고려로부터 훈업과 덕망의 명가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크게 번창한 집안은 손가락을 많이 꼽을 수 없으니 연이어 혁혁하여 타 문에서는 따를 수 없도록 융성함은 우리 청송심씨 계통에서만 볼 수 있다.

먼 조상에 이름 용(龍)이란 분이 있었는데 고려 때에 현달하여 증직이 문화시중(門下侍中)이고 이름 덕부(德符)에 이르러서 시중으로서 훌륭하여 청성백(靑城伯)에 봉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좌정승(左政丞)이 되어 구호(舊號)를 승습하였다. 이름 온(濫)은 영의정부사로서 시호가 안효공(安孝公)이며 소헌왕후(昭憲王后)를 낳으셨다.

이름 회(澮)는 이어 정부의 으뜸 관작으로 익대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이며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하여 시호가 공숙공(恭肅公)이다. 이름 원(浚)은 벼슬이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인데 중직의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이고, 순문은 벼슬이 의정부 사인(舍人)인데 증직이 영의정(領議政)이고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신영석(申永錫)의 집에 장가들었다. 찬성 이하의 증직은 공의 직위가 높아 추은(推恩)된 것이며 감찰은 시조가 숭겸(崇謙)인데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합할 때 으뜸 공을 세웠다.

두 성씨가 덕스러운 배필로서 봉 같은 네 아이들을 길렀으니 공의 서열은 장남이며 이름은 연원(連源)이고 자는 맹용(孟容)이다.

이를 갈 나이부터 단중(端重)하고 영출하여 어느 아이들보다 뛰어났으나 가화(家禍)를 만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에 의해 옳은 방도

를 배웠으며 뜻하는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외숙부인 서령(署令) 신원(申援)이 진실로 특이한 그릇으로 알고 공의 큰 인물됨을 더욱 촉진시켰다. 거의 자라서 모재 김공(慕齋 金公김안국)에게 수업하여 더욱 강구(講究)하였다. 이 때 모재께서 배도(陪都)에서 적전(籍田)을 측량하고 설정하는데 공이 스승을 따라 다니며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재예와 식견이 크게 늘어서 풍성한 소문이 들렸다.

병자(丙子:1516)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으뜸으로 뽑혀 성균관에 들어가니 삼사(三司)에서 경모하고 사귀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은 더욱 겸손하며 스스로 낮추어서 학사들과 독습하였으나 극성스러운 풍습을 맞아 공이 이미 허물을 쓰고 밀려나게 되었으나 또한 비방하지 않았다.

임오(壬午1522)년에 처음 관복을 입고 승문원(承文院)에 권지(權知)로 배속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로 옮기고 차례대로 대교(待敎)와 봉교(奉敎)로 올랐으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사정(副司正)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봉교로 환원했고, 사헌부 감찰로 승직한 다음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옮기고 예조좌랑으로 바뀌었다가 시강원 사서(侍講院 司書)를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다.

얼마 뒤 중시(中試)에서 장원하였는데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 당했다가 다시 전직(典籍)이 되고 이조정랑으로 승급한 뒤 얼마 안 되어 어머니상을 당하여 여묘(廬墓)3년을 치르고 복이 끝난 뒤 예조정랑이 되었다.

이때 인종께서 동궁으로 있을 때라 한때 궁료(宮僚)를 선망하였는데 마침 공께서 문학(文學)으로 뽑혀서 예조정랑과 겸직하게 되었으나 부득이 시강원 문학으로 있다가 군기시 첨정(軍器寺 僉正)으로 승급되고 드디어 의정부 검상(檢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승급하여

사인(舍人)이 되었는데 때마침 장인이신 김공께서 찬성(贊成)을 배수 하였으므로 이를 꺼려서 사복시 첨정(司僕寺 僉正)으로 옮겼다.

영남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자가 많았으므로 공이 구휼하는 명을 받았는데 먼저 편리한 계책을 강구하고 잘 타일러서 사리를 능히 분별하였다. 이재민을 알맞은 곳에 집결시켰으나 사정이 지나치게 곤란하여 공이 조종에 보고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창고를 열고 골고루 먹이니 도민이 온전하게 살아났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자 부정(副正)으로 전근되고 얼마 안되어 군기시정(正)으로 승진되었다.

이때 관리관이 자기 기본대로 기준 없이 진급도 시키고 쓸 만한 인물을 내치기도 하여 공이 홀로 굶하지 않고 정당하게 맞섰다. 일찍이 이조(吏曹)에 있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추천할 계제에는 무고로 인해 밀린 자들이 힘껏 변명해 왔다. 마침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결원이 생겨 공이 천거에 의해 승진 발령되어 떠나게 되었으나 내용인즉 배제를 당한 것이다. 공은 아무렇지 않게 내색도 짓지 않았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으로 인해 배가 키질을 하듯 흔들려서 뱃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공은 의젓하게 의자에 기대어 여느 집에 있을 때 같더라.

제주에 부임하여 주민들을 어루만져 기르고 불법을 막는 외에 농정을 겸해서 독려하니 도내 전체가 풍성해졌다.

또한 해도의 지방 풍속을 엿신여기지 않고 몸소 예절을 가르치고 크게 글방을 수축하여 <사서(四書)>와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을 간행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과습 시키니 백성들 가운데 공부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졌고 국학에 뽑아 넣은 자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①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온정리에 있는 심연원(충혜공)의 신도비 높이1427cm,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② 심연원 신도비
 ③ 탁본 : 국조인물고 심연원 비명



위봉산성 <심경택(1805~?), 심이택(1832~?) 영세불망비> 소개

심재석(중보편집위원, 문학박사)

두 비석의 문구는 이렇다.

우측 비석의 글 : (전면) 觀察使 沈敬澤 永世不忘碑
(후면) 光緒五年乙卯

좌측 비석의 글 : (전면) 觀察使 沈履澤 永世不忘碑
(후면) 戊午冬立

비석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총 5개의 비석 중 심문의 비석만은 온전한 상태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이 비석들은 예전에는 숲 풀에 둘러싸여 있었고, 보존 상태가 엉망이었다. 지금은 주변 만 정리한 듯하다.

위봉산성은? - 조선 숙종 시에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이성계 영정을 옮기기 위해서 전라관찰사는 위봉산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심경택, 심이택 두 분의 관찰사도 이곳을 순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산성 안에는 유서 깊은 고찰 위봉사가 자리하고 있다.

심경택 선조는? - 1859년에 9대조 선조인 심광세(沈光世)의 문집을 중간하였다고 한다. 문집은 「해동악부

(海東樂府)」였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심광세(沈光世)가 지은 이 책은, 1617년(광해군 9) 계축옥사로 경상도 고성에 유배가 있을 때에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하여 감계(鑑戒: 지난 잘못을 경계)의 뜻을 가탁하기 위하여 지은 연작(連作)의 역사악부(詠史樂府)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관심과 지식층의 새로운 자각을 배경으로 하여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상사적인 의의가 높다.

심이택 선조는? - 사진 좌측 비석의 주인공인 심이택(1832, 순조 32~?) 선조는 1858년 과거에 급제하여 1874년에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곧 청나라 사신이 되어 일을 마치자 1876년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1878년 전라관찰사로 부임하여 1880년 까지 3년여를 재임하는 동안, 전라도 지역의 사정을 조정에 알리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구제 문제, 서해안의 이양선 출몰 상황, 세금 징수에 따른 애로 사항 등을 자세히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적절한 시책이 따르도록 조치하였다.

이 공로로 경기도 광주부 유수로 특별히 발탁되었다. 이후 형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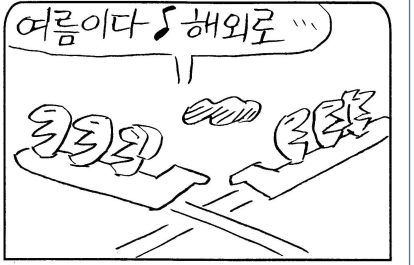
이 비석은 光緒帝(1875~1908) 시기에 건립되었다.

광서 5년은 1879년(고종 16년) 乙卯年이다.

심경택 비석은 공이 이 임한 직후에 세워진 것이고, 심이택 비석은 공이 재임 중에 위봉산성 시찰을 계기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순행 시에 관찰사의 덕을 기리는 영세불망비를 세웠던 것이다. 두 비석 모두 150여 년 전의 심문의 위세를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沈영감 심민섭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① 영세불망비(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위봉산성에 위치)
② 위봉산성 흥예문 안쪽

살의유머 독설가 존슨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평론가인 벤 존슨은 어디에 초대되어도 내은 음식을 홍보하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깎아 내리고 혹평을 하므로 함께 식사하던 사람조차 식욕이 없어지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곤 하였다. 어느 날 그가 식탁에 나온 음식을 보자 "이것은 영락없이 돼지먹이"라고 혹평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집 아주머니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어머나! 그래요? 그렇다면 한 접시 더 드려야겠군요." 그 후로 벤 존슨은 자기의 독설을 삼가 하게 되었다.

글 제공: 대중회 관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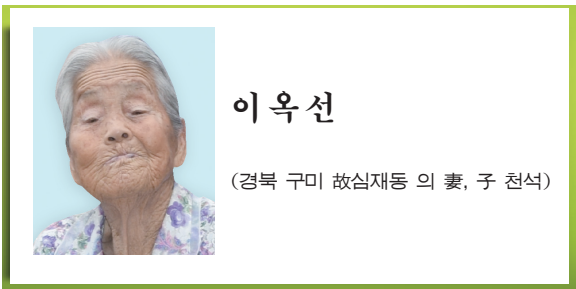
네 번 접은 천 원짜리 지폐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그녀는 12년 동안 남편의 독립 운동을 돕고, 12년 동안 영부인으로 살았으며, 22년 동안 남편 없는 땅에서 살다간 파란 눈의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쪽을 찌고,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만 먹고,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이 보이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절약하고 또 절약하라고 당부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1970년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해 1992년까지 '이화장'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그 동안 '이화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1988년 '이화장'을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화장'을 개방할 때 형편이 어려웠지만 입장료를 못 받게 했고, 창문을 열어 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해 주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화장'을 죽 돌아보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러 왔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참 고맙습니다. 함께 독립 운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서 치마를 들추고 속바지 주머니에서 뒀가를 꺼냈다. 꼬깃꼬깃 네 번쯤 접은 천 원짜리 한 장이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며 당부했다. "이 걸로 꼭 사탕 사 잡수십시오." 프란체스카 여사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 돈을 받았다. 그것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평생 동안 받아 본 돈 가운데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금액의 돈이었던 것이다. 글 제공 : 상은 중보편집위원회 고문

종인 소개

익명의 장학금을 보내주신 이옥선(96) 할머니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병을 얻어 병오년(1666)10월 26일 운명하니 62세이시다. 公의 전 부인 新坪李氏는 一男을 두었으니 (諱:若河)이시다. 후부인 咸平李氏는 3남 5녀를 두니 첫째가 若濟다음이 若沂 다음이 若潢이다. 2001년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개통으로 公의 산소를 후손이 많이 사는 선산으로 옮기게 되었다.

아 성금을 내야 좋을 것 같았습니다.

7. 장수하고 계시는데 건강 비결은?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일제 때 교회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심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지요. 그리고 자식과 며느리, 손자들과의 원만하고 다정 다감한 관계가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8. 예전에 할머니의 정성어린 기도와 손수 만든 약으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됐다고 한다. 남에게 늘 물심양면으로 베푸는 삶 자체가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 하시는 일은?

5월까지의 시장을 봤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5일 장을 못가고 자식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 대종회에 건의하실 말씀은?

연천의 청성백 묘소와 수원의 안효공 산소에도 가 보았고, 청송의 시조 산소도 가보았다. 심씨 문중에 시집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종회에서 큰일을 많이 하시는데 애쓰시는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옥선 할머니는 벽진 이씨 시다. 그 시조는 이충언으로, 고려 초기부터 왕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주 지역의 세력가였다. 뿌리가 오래된 이씨 집안과 명문 심씨 가문이 하나가 되어 자손이 번창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할머니는 말씀하시는 내내 목소리가 크고 정정하셨다. 오래 오래 장수하실 것이 틀림없다. 선산에서는 이 일대의 심씨 집성촌 사람들을 '서부 심가'라 부른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했기 때문이라 한다.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한 때는 심씨의 세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 출신으로 국문학자 재완 박사와 그 아들 명필 씨가 유명하다.

* 집행부와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도, 할머니는 피곤하면 아들 며느리의 무릎을 베고 누우셨다. 너무나 편안하고 다정한 모습에 몽클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니 집안이 잘 되는구나 싶은 것이다. 늘 건강하시고 그대로 다복하시길 기원한다.

글·대담 : 재석(문학박사, 종보편집위원)
동석 : 갑택 문화이사·재서 재무이사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7년 9월(종보127호) 예정
차기 종인 탐방 : 심재열 대종회 이사
경영학 박사
탐방일 : 8월초
탐방원 :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운 편집위원

* 선산으로 향하는 날 아침은 화창하였다. 재서, 갑택 이사님과 만나 KTX로 구미로 향했다. 마른장마가 오락가락하였으나, 도착한 선산의 이옥선 할머니 댁에는 아들 천석 씨 부부와 따님, 그리고 전 선산 종친회장인신 우정 부부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파트가 따로 있지만 연로하신 할머니의 뜻대로 농사짓는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할머니는 반갑게 방문객의 손을 잡으시며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고, 나라가 잘 돼야 한다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1. 할머니의 부군이신 故 재동 할아버님은 어느 파 몇 대손이신지요?

6세조 공숙공의 19대손이고, 아들 천석은 20대 손입니다. 14세(沈愾)가 중시조이고, 그 아드님이신 약하, 약제, 약항 세 분의 묘소가 구미 선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十世祖의 휘(諱)는 강(綱)이요, 강은 명종의 비 인순왕후의 아버지이며 十一世祖인 대사헌정양군(大司憲靑陽郡, 諱:義謙)은 공의 曾祖이시다. 祖(諱:掩)은 옥과현감(玉果縣監)이고 아버지 休翁(諱:光世)는 흥문관응교로 학문이 뛰어나 해동악부(海東樂府)를 저술하였다.

(諱:掩)은 字는 상지(尙志)이고 온양공(諱:仁謙)의 양자다.

生父는 청양군(靑陽郡:諱 義謙)으로 5세 때 伯父인 온양공에게 입양(入養)되었다.

十四世인 公(諱:愾)은 乙巳年(1605) 8월28일에 출생하였다. 乙亥年(1635)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자여도찰방(自如道察訪)으로 재임 중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군대가 대거 침입하여 조선군이 패하여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하게 되었다. 이때 公은 차출 받아 적진으로 추격하여 많은 적을 섬멸하고 수천의 포로로 잡힌 아군을 탈환하는 전공을 올리며 전진하다가 강화소식(講和消息)을 듣고 통곡하며 해산 했다.

인조대왕은 公을 引屍하고 충의와 무공을 칭송하니 公은 자신의 공적을 사양했다. 신영과 경산현감을 지낸 후 孝宗 辛卯年(1651)에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훈련도감 병조좌랑을 거쳐 갑오년(1654)에 광주부윤에 제수되니 公은 왕명으로 성력을 다하여 성곽과 병기를 일신하고 군량을 비축하며 군사도 증원하였다.

公의 강직성과 추진력은 원적의 대상이 되어 경기감사 趙모의 주동으로 무고(誣誣)한 죄를 씌워 3년 옥살이를 거쳐 6년간의 응천현에서

2. 자녀는 몇 분이나 두셨는지요. 고 재동 할아버지께서도 종사에 참여 하였는지요? 그리고 어떤 분이셨는지요?

4남 5녀를 두었고, 그 아래 손자 4명, 손녀가 3명 있습니다. 일제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들 교육을 많이 못시켰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강당에서 열리는 종회 모임 적극 참석하시었습니다. 장골에다 힘이 세고 경우가 바른 분이셨던 할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하셨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에게 경우가 밝게 행동하시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도 90세 넘게 장수하시었다.

3. 할머니께서 종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과거 광주부윤공 후손으로 선산 청송 심씨 집성촌에 시집왔다. 벽진 이씨 처녀 5명이 이 심씨 집성촌으로 시집왔으니, 심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것이다. 시대에 살면서 모든 제향 차림과 각종 종중 모임과 친목회 참석, 그리고 선조 성묘 행사 참석 등을 보면서 종사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2014년에 700만원, 2015년에 700만원의 거금을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탁하셨는데,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쓸 것 다 쓰고 어찌 성금을 낼 수 있나요? 고생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선조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듣고 살았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싶어서 기탁했지요. 재물을 좋은 데 써야 합니다.”

5. 손자 규현이도 성금 기탁에 적극적이 라는 데요. 자랑 좀 하세요.

천석 씨 아들인 손자 규현은, 종회 장학금 추천도 사양하고, 이천에 있는 제약 회사에 취직하자 첫 월급을 성금으로 냈다. 기특한 일이다.

6. 4세조 청성백 재각 성금도 많이 하셨는데, 재각 헌성에 대하여 하실 말씀은?

자식들이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뿌리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부모나 조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해서입니다. 재각성금은 고 재동 할아버지와 이옥선 할머니, 그리고 자식인 무남, 천석, 주석 등이 힘을 합치고, 거기에 손자들인 규원, 규정, 규진, 규현이 거들었습니다.

조상님 받드는 일이니 일가족 모두가 뜻을 모



시조촌향 시 묘소 앞에서(할머니, 아들 천석씨, 대종회 집행부)



이옥선 할머니 가족



가족과 탐방자 함께 할머니 자택 앞에서



2017학년도 청송심씨대중회 장학생



심하영
병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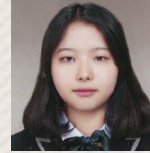
심재원
계원예술고



심원보
동아마이스터고



심규원
둔원고



심유나
신일여고



심보연
호스둔여고



심재민
대전중앙고



심지영
강동고



심재혁
강북고



심준걸
청송고



심윤주
청송여고



심수빈
상업정보고



심규정
증평공고



심민규
성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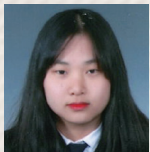
심규승
세광고



심민경
다대고



심재혁
밀양고



심유경
경원고



심현정
경남여고



심보운
금파공고



심예은
명진고



심규환a
영서고



심규환b
영서고



심예진
육민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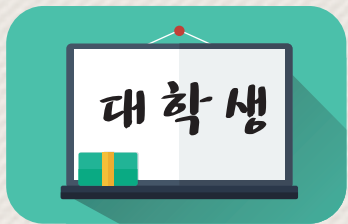
심혁
진관고



심지현
상지여고



심혜지
상지여고



심효영
명지대



심형섭
폴리텍대



심지현
영진전대



심규등
대구경일대



심준
서울대



심규영
보건과학대



심진보
동의대



심예진
부경대



심다혜
경남대



심민수
부산대



심성완
창원대



심정민
동아대



심수정
비전대



심은미
광주여대



심현보
서일대



심규민
충남대



심형주
가천대



심남희
가천대



심석현
원주대



심아영
청주대



심현준
국민대



심상연
두원공대



심예진
한림대



심석용
배재대



심원태
단국대



심수진
건국대



심이삭
인하대



심세은
숭의여대



심정현
연세대



심지수
한양대



심대용
우송대



심경운
경북대



심준상
선문대



심하나a
조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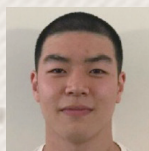
심하나b
조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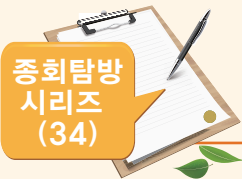
심찬보
한림대



심흥섭
목포 해양대



심재성
카나다York대



靑松沈氏泛齋(범재)公派宗會



심철유

범재공파 회장
대종회 이사/ 안성유사

1. 종회의 구성

범재(泛齋)公派宗회는 안성에 본적을 둔 약 35명, 용인에 본적을 둔 약 13명이 주로 종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종회의 구성

종회 집행부는 회장 1인, 총무 1인, 이사 7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젊은 종원들이 종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입향조와 중시조는 누구이시며 행적은?

입향조는 청송심씨 10세조 諱:岱(대)이시며 범재(泛齋)公派宗회는 그 다섯째 아드님이신 휘 대부(大學)이시며 자(字)는 신숙(信叔)이십니다.

公의 부친이신 총장공 10세조 諱:岱(대)께서는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지내시면서 선조(宣祖)임금을 섬겼는데, 임진왜란을 당해 임금을 수행하여 평양으로 갔다가 경기도 지방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적병과 싸우다가 패사(敗死)하자, 임금이 그 충렬(忠烈)의 큰 공훈을 포장(褒獎)하여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작(追爵)하고,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였으며 공의 배위 최씨(崔氏)는 우윤(右尹) 최홍간(崔弘幹)의 따님이십니다.

아버지 총장공께서 돌아가실 당시 공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는데, 집상(執喪)하는 처량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자라나면서 어머니께서 경계(警戒)하기를, “과부의 자식은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독서(讀書)와 수행(修行)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공이 낮빛을 바꾸고 근심하면서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힘써 공부하여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아니하셨으며 남쪽으로 유학하여 한강(寒岡) 정구(鄭述) 선생을 뵈고 ‘심경(心經)’을 수업하였으며, 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은 공을 보고 현재(賢材)라 하며 ‘주례(周禮)’ 한 부를 주면서 “주나라의 도를 힘써 공부하라.” 하였습니다.

1613년 공의 나이 28세에 사마시(司馬試)에서 1등으로 진사(進士)에 뽑혔으며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난 해 3월 선행(善行)으로 천거되어 처음으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1630년에 대군(大君)의 사부(師傅)가 되었으니, 효종(孝宗)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사(司史)가 사부 대접을 하므로 공이 극구 사양하니, 이 때문에 예우(禮遇)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1632년에 여러 번 전직하여 형조 좌랑(刑曹佐郎)이 되었고, 1633년에 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及第)하셨으며 예조좌랑(禮曹佐郎)을 거쳐 사간원(司諫院)으로 옮겨 정언(正言)이 되셨습니다.

1634년에 송화 현감(松禾縣監)을 거쳐, 1637년에 문경(聞慶)의 가은(嘉隱)에 살 곳을 마련하고, 범재(泛齋)라 이름을 붙이니, 곧 집이 없음을 이른 말이며, 이어 수찬(修撰)과 교리(校理)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으시고 1638년에 지평(持平)으로 불리었고,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에도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셨으며 1640년에 수찬에서 다시 헌납(獻納)되었습니다.

1643년에 종부시정(宗簿寺正)이 되었고, 이어서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 나가셨는데, 성문(城門)에 표방(標榜)하기를, “몸가짐을 청렴하고 근신하게 하며 정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은 태수(太守)의 일이니, 태수는 힘쓸 지어다.

효우(孝友)를 돈독히 하고 약속을 지켜서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백성의 일이니, 백성들은 힘쓸 지어다.”라고 하신 다음, 약하고 외로운 자와 나이 많은 이를 위문(慰問)하고 일년 중 계절에 따라 쌀과 고기를 보내주는 것을 한결같이 고사(古事) 하셨습니다.

1649년에 다시 들어와 응교(應教)가 되시어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을 겸하셨습니다. 지난날 공이 사부(師傅)였으므로 세자가 존례(尊禮)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 예를 맡은 관원이 옳지 않다고 하였지만 매번 입시하면 세자가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1656년에 선공(先公)의 묘를 옮기면서 공이 말하기를, “예에 삼년복(三年服)을 입었으면 이장(移葬) 때는 석 달 동안 시마복(總麻服)을 입는다.” 하며 거처(居處)와 곡읍(哭泣)과 음식(飲食)은 모두 초상(初喪) 때처럼 하고 묘하(墓下)에 여막(廬幕)을 지어 3개월을 지내셨습니다. 이때 공의 나이 일흔 하나로 몹시 여위고 병을 얻어 이듬해 10월 28일 세상을 떠나시니, 처인(處仁)의 선친 묘 옆 사향(巳向)에 장사를 모셨습니다.

4. 종회의 연중행사 및 활동사항

泛齋(범재)公派宗회는 매년 초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연도의 묘소 돌보기, 별초, 시제향 봉행 방법에 대한 토론과 향사에 젊은 후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등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순응하는 전통을 가진 종회입니다.

5. 대종회에서 안성소재 종재를 소송으로 환수해간 사안에 대한 의견은?

본 종회는 그 동안 안성소재 대종회 종재를 매개로 안성거주 일부 종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안성 거주 종인들 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었으나, 대종회에서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명의를 회수해가고 대종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방법이 바뀌면서 갈등의 원인이 제거된 것이라 판단하여 우리 종원들은 모두 대종회의 금번 소송은 매우 잘한 일이라 칭송합니다.

6. 대종회의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의견 및 시정사항

대종회 집행부를 지파 종회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지만 종전의 집행부에 비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종원들의 참여기회를 넓히며 잘 운영해가고 있다고 종원들은 평가합니다.

7. 대종회의 장학사업 및 청성백 재각건립에 대한 평가는?

대종회의 장학 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시작한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유구히 유지 발전시켜야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학사업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후학양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바라며, 청성백 재실건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심문의 상징인 선조님에 대한 후손의 도리로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회장님 이하 상임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며 유구히 보존할 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글·대담 : 광섭 편집위원
동석 : 갑택 문화이사

차기 종회 탐방예정

탐방총회: 시정공파총회(회장 익섭)
탐방일: 2017년 8월 下旬
탐방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혁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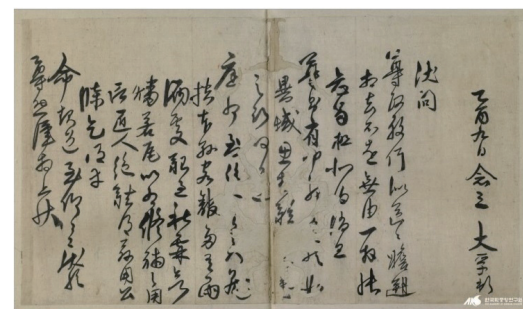
안성회관 앞에서

종회탐방 전 깔끔하게 간판을 바꾼 안성회관 앞에서. 좌로부터 광섭 위원, 철유 범재공파 회장, 병주 종원, 흥주 종원, 갑택 문화이사



宗會探訪 모습

左側부터 광섭 편집위원, 철유 범재공파 회장, 흥주 종원, 병주 종원



중시조께서 쓰신 편지

성균관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으며 기와를 굽는 장인을 보내달라는 내용

行列對照表

가. 대동보(大同譜)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항렬	○之 지	能 능	宜 의	○澤 택	相 상	變 섭	載 재	○輔 보	揆 규	○用 용	寧 영	○起 기	章 장
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항렬	○厚 후	亮 양	○南 남	茂 무	○鎔 용	漢 한	○根 근	炯 형	○均 균	鎭 진	○淳 순	東 동	○炳 병
세	45세												
항렬	○坤 곤												

바. 감사공(監司公, 휘:友勝)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항렬	東 동	○慶 경	在 재	○鎭 진	潤 윤	○根 근	應 응	○用 용	鉉 현				

사. 곡산공(谷山公, 휘:鎡)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항렬	○之 지	能 능	宜 의	○澤 택	相 상	○變 섭	載 재	○善 선	揆 규				

아. 효창공(曉窓公, 휘:逢源)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항렬	啓 계	學 학	雨 우	承 승	○來 래	○變 섭	○圭 규	○鎬 호	泳 영	楨 정	○烈 열	○基 기	錫 석
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항렬	海 해	○植 식	○然 연	重 중	鍾 중	○浩 호	○模 모	炯 형	義 의	○鏞 용	○浚 준	東 동	炳 병
세	45세												
항렬	○培 배												

나. 인수부윤공(仁壽府尹公, 휘:澄)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항렬	○永 영	樂 낙	魯 노	遠 원	鍾 중	○求 구	○植 식	愚 우	基 기	○錫 석	泰 태	○秀 수	丙 병
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항렬	○均 균	○鎔 용	震 진	○東 동	寧 영	○起 기	鏞 용	漢 한	相 상	○熙 희	在 재	○鑽 찬	承 승
세	45세												
항렬	○根 근												

다. 동지중추공(同知中樞公, 휘:湄)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항렬	東 동	○慶 경	在 재	○鎭 진	彥 연	○根 근	熙 희	○錫 석	雨 우				

라. 진사공(進士公, 휘:大亨)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항렬	○潤 윤	鎭 진	永 영	○秀 수	應 응	○玉 옥	錫 석	○輔 보	揆 규				

마. 사간공(司諫公, 휘:大孚)파 항렬

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항렬	○銖 수	雲 운	○根 근	○裕 유	○周 주	○善 선	載 재	○欽 흠					

항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위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는 문중 율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항렬자의 제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씨족마다 또는 가문마다 각기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오행상생법에 따라 제정된 경우가 가장 많다. 우리 문중에서도 가문별로 항렬자를 따로 정해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동보(大同譜)편찬 시 제정한 항렬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항렬대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부터 25세까지는 금·수·목·화·토의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에 따랐음을 손쉽게 알 수 있다.

26세 보(輔)자 이후의 항렬자는 1920년 경신보편찬 시 제정된 것인데 이 경우는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간지와 오행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제정하였기 때문에 색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輔)자는 申, 규(揆)자는 癸, 용(用)자는 甲, 영(寧)자는 丁, 기(起)자는 己

자(己)는 己자(己)가 포함된 글자 중에서 선정한 것인데 간지를 다시 오행으로 풀이하면 申은 金, 癸는 水, 甲은 木, 丁은 火, 己는 土에 해당하므로 결국은 金·水·木·火·土의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을 적용해서 제정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렬자는 순서에 따라 아래위로 번갈아 쓰여지고 있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각종 찬조현황 2017. 5. 22 ~ 2017. 7. 17

<h4>임원회비</h4> <p>부회장 회비 300,000 민섭 부회장, 현근 부회장 의철 부회장</p> <p>이사회비 50,000 (화성)홍섭, (전북)대섭 (경기)극택, (인천)대식 (용인)상대</p>	<h4>장학찬조</h4> <p>500,000 광주청광회(회장:재규)</p> <p>200,000 부평공중회(회장:진태)</p>	<h4>지로 중보찬조 1만원</h4> <p>기석 재옥 상업 규익 정보 덕섭 민섭 재학 무속공파중회 우권 규진 우섭 재환 원준 상태 철보 정순 재총 재현 상진 재화 호근 효섭 두식 승길 현보 인식 상만 재진 재명 경모 무명5</p>	<h4>중보찬조</h4> <p>200,000 관공중회(회장:상열)</p> <p>100,000 (서울)재곤, (대구)보성, 부평공중회(회장:진태)</p> <p>60,000 (서울)우엽, (전남)강채</p> <p>20,000 (경기)희보</p>	<h4>재각현성금</h4> <p>30,000,000 인수부윤공중회(회장:정규)</p> <p>3,450,000 도총제공중회(회장:민섭)</p> <p>1,000,000 (구미)무남, (구미)규원 (구미)규정, (구미)천석 (인천)윤보, 언태 총무이사</p> <p>500,000 (서울)기섭</p> <p>300,000 부평공중회(회장:진태)</p> <p>200,000 (수원)언춘</p> <p>100,000 (대전)성보, (춘천)상소</p> <p>50,000 (괴산)장규</p>
---	---	--	--	--

■ 재각 현성금 1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진개제

 도총제공중회 회장 (민섭) 1천만원 2017년 7월	 인수부윤공파중회 회장 (정규) 3천만원 2017년 6월	 악은공중회 회장 (상화) 1천만원 2017년 5월	 안동중회장 (재덕 개인) 1천만원 2017년 4월	 내금위중회 회장 (영구) 1천만원 2017년 4월	 부사공중회 회장 (영섭) 1천5백만원 2017년 3월	 정랑공파중회 회장 (재운) 1천만원 2017년 3월	 정기공파어비리 중친회 회장 (석문) 1천만원 2016년 12월	 안효공파중회 회장 (명욱) 3억원 2016년 12월	 찰방공중중 회장 (규일) 1천만원 2016년 11월
 곡산공파중중 회장 (상영) 1천만원 2016년 11월	 창순공파중중 회장 (주택) 1천만원 2016년 11월	 이경공파중중 회장 (주택) 1천만원 2016년 11월	 인수부윤공파 합흥공중회 회장 (장식) 1천만원 2015년 8월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성보) 1천만원 2015년 7월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광섭) 1천만원 2015년 2월	 안효공파 대중회 고문 (재영) 1천만원 2015년 2월	 안효공파 대중회 회장 (갑보 개인) 1천만원 2015년 1월	 안효공파 공숙공중중 회장 (웅섭) 5천만원 2014년 11월	

■ 중보·정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개제

 광주청광회 (회장: 재규) 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6월	 판사공중회 (회장: 상우) 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5월	 어비리중회 (회장: 석문) 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4월
 시정공파중회 (회장: 익섭) 중보찬조 100만원 2017년 3월	 공숙공중중 (회장: 웅섭) 중보·정학찬조 200만원 2017년 3월	



2017년 11월 3일(음 9월 15일) 4세조 청성백 추향일에 재각준공식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각모습



청송골프회(회장 상화)는 지난 6월19일 안산 제일CC에서 청송심씨대중회장배 골프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갑보 대중회 회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즐거운 일가들의 만남이 될 수 있었다.

청송골프회는 앞으로 일가분들의 친목과 대중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청광회(회장 재규)는 청송심씨 광주모임으로분기마다 골프를 통한 친선을 다지고 있으며, 대중회에 장학금 50만원을 기탁하였다.



청송군청 승진

청송군청에 근무하는 남규 일가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건강검진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부 고



심재서

대중회 재무이사께서 2017년 7월 30일 향년7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故人的 冥福을 바랍니다.

만세루(萬歲樓)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만세루가 2017년 6월 25일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었다.



만세루는 청송심씨 시조인 문림랑위위시승 청기군 심흥부의 묘 밑에 지어진 제각으로 세운 연대는 따로 전해오는 기록이 없고 1428년(세종10년)에 소헌공원에 위치한 찬경루(讚慶樓)와 같이 지어졌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6간 양익(兩翼) 2층 누각으로 1856년 각각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사계절 향사를 받드는 날 비바람이 심할 때는 직접봉향이 어려우면 이 누각에 모여 봉전(奉奠)하고 또 이곳에서 가복(暇福)을 받았던 제각이다.

만세루는 당초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등재 되어있었으나 지난 25일 경상북도 문화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어 30일간의 공고를 거쳐 지정고시 된다.

(경상매일신문 발췌)



악은공(휘:원부)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경의재

1979년도에 창건된 4세조 악은공 선조님의 재실인 경의재(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70외 1)는 그동안 청송 악은공종회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대중회 정관 제3조(사업)에서 “대중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5처묘소 및 2단소의 수호와 제향봉행 및 재산을 관리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 7. 18.자로 대중회에 증여하여 경의재의 소유권이 대중회로 이전(등기)됨.

※ 경의재 규모
대지 1,758㎡(약 532평), 건물(부속건물 포함) 263.48㎡(약 80평)

2017년도 추향일 안내

구 분	장 소	양 력	음 력
시조홍부(諱:洪孚)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보광산)	10월 28일(토)	9월 09일
2세조 합문지후공(諱:淵)	전북익산시합열읍 남당리산64(남당산)	10월 30일(월)	9월 11일
2세조 봉익대부공(諱:晟)	강원도철원군 동성읍 양지리31(설단)	11월 13일(월)	9월 25일
3세조 청화부원군(諱:龍)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산19	11월 01일(수)	9월 13일
3세조 청화부원군배위(金氏)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산64	11월 01일(수)	9월 13일
4세조 청성백(諱:德符)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야미리	11월 03일(금)	9월 15일
4세조청성백배위(淸州宋氏)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산8(분동)	11월 05일(일)	9월 17일

공지사항

- 2017년 2차 회장단회의(5/12)에서 연천 청성백·정안공 재각 준공식(11/3) 참석에 버스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아래의 버스대절비용 지원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등은 양식에 명시 되었으며, 지원자금은 재각기금이 아닌 운영자금에서 지급합니다.

수신 : 대중회 재무이사
발신 : 00 종회 총무
일자 : 2017년 10월 일

버스 대절료 지원 신청서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 준공식(11/3) 단체 참석)

지 역	종회명	참석인원	신청액
00	000	00	1) 버스 대절료 : 2) 왕복 통행료 : 3) 기사 수고료(고정) : 50,000원

- 40명 초과 시에도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 2017년 10월 1일 ~ 10월 20일 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대절료 지원신청 시 버스 대절 계약서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을 위한 헌성금 모금은 2017년 8월 31일(목)까지 마감합니다. (농협 301-0159-0778-41 청송심씨대중회)
- 2016년 12월3일(토) 종보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종회의 공지사항(종회공고 등)이나 종인 개인사업 광고 등의 광고료를 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료는 종보발행비로 충당합니다.
- 대중회를 빙자한 각종 보첩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중회는 책자 등 구매를 전 화상으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요하지 않고 족보나 배지, 종보수첩 이외에는 판매하는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책자나 가훈 등 판매물이 도착하면 뜯지 마시고 발송처로 착불 반송해 주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종보 찬조금 지로 용지는 연 2회(3월호와 9월호 종보) 우송되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

◎ 125호 정정사항

- 1면 · 이사선임 추가 - 광주 우경, 재익
·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
위원추가 - 전남 상식